

여수소방 양승남 소방장, 우수 구조대원 선정

1등급 특진·소방청장 표창 전수 영예



여수소방서는 제3회 우수 구조대원 특별승진자로 선정된 양승남 소방장에게 소방청장 표창을 전수했다고 밝혔다.

우수 구조대원 특별승진은 소방청 주관으로 각종 재난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 전국 시도 소방본부 22방의 우수 119구조대원을 선발해 1등급 특별승진과 함께 소방청장 표창이 수여되는 영예로운 상이다.

올해 우수 구조대원으로 선정된 양 소방장은 13년간 구조대원으로 근무하며 1400여 건의 구조 현장에 출동했으며, 특히, 2022년 실시된 제2회 구조정책연찬대회에서 전남

도 1위를 차지하는 등 강한 체력과 지성을 겸비한 만능 구조대원으로 평가된다.

양승남 소방장은 “동료 구조대원들 덕분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아 감사한 마음”이라며 “늘 배우는 자세로 더 큰 사명감을 갖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달승 시장은 “재난 현장 최전선에서 언제나 적극적으로 임해 특별승진 대상으로 선정된 걸 진심으로 축하한다”면서 “앞으로도 소방 공무원으로서 사명감을 갖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포토뉴스



현대삼호중공업(주)협력업체협의회, 1천만원 지정기탁 현대삼호중공업(주)협력업체협의회에서는 13일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영암군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이웃돕기 성금 1000만원을 지정기탁했다. 기탁된 성금은 11개 읍·면의 추천을 받아 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영암·김형두 기자



광양용강도서관, 크리스마스 가족친화 공연 ‘매직 벌룬 버블쇼’ 광양용강도서관은 크리스마스를 기념해 어린이와 가족이 특별한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준비한 매직 벌룬 버블쇼 공연을 지난 10일 오후 2시 가족친화 공연을 호응 속에 마무리했다. /광양·조순의 기자

광주시교육청, 주인공활동 4·3 역사캠프

참여 학생들 시민성 함양과 역사인식·가치 공유



광주시교육청이 13~14일 중3 학생들 40여 명 대상으로 주인공활동 4·3 역사캠프를 진행한다.

13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캠프는 광주시교육청과 제주 4·3평화재단이 협업해 진행한다.

특히 주인공활동 프로젝트 참여 학생들의 시민성 함양과 4·3과 5·18 역사인식 및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 기획했다.

이번 주인공활동 4·3 역사캠프는 4·3평화교육센터에서 개강식을 가진 후, 위령제단에서 참배하며 역을 하게 희생된 영령들을 추모한다. 이

▲평화기념관과 평화공원 관람 ▲참여학생들의 협력적 의사소통을 위한 만남과 소통의 시간 ▲4·3과

5·18 정신을 공유하는 특강 및 제주 문화체험활동 등으로 진행된다.

한편 ‘주인공활동’은 주제·인간관계·공헌·즐거움으로 학생들이 일상 속에서 삶과 연계된 활동을 주도적으로 실천하도록 돕는다. 유의미한 경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삶의 힘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교육복지우선 지원사업의 프로젝트이다.

시교육청 시민참여담당관 안석 과장은 “주인공활동 4·3 역사캠프를 통해 우리 학생들이 공동체에 기여하는 시민성을 함양했으면 한다”며 “우리 시교육청은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광주교육’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도기 기자

켄텍 윤철민 교수 ‘제3회 모하분석철학논문상’ 수상

대법공지침 사례들에 대해 비판적 논의·대안적 해석 제시



한국에너지공대(KENTECH) 윤철민 교수가 지난 10일 한국 분석철학회 가을 정기학술대회에서 ‘제3회 모하분석철학논문상’을 수상했다.

고(故) 모하(慕何) 이현조 전 LG전자 회장이 서울대학교 철학과에 출연한 모하학술기금으로 운영되는 모하분석철학논문상은 한국 분석철학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논문을 발굴해 시상함으로써 국내 분석철학 분야의 연구를 진작시키는 데 그 의의

가 있다. 윤철민 교수는 수상논문인 ‘The Transitivity of De Jure Coreference: A Case against Pinillos(Philosophical Studies, 2021)’에서 대법 공지침 (de jure coreference)이라는 언어현상의 본성을 다루고 있으며, 해당 논쟁을 촉발한 피닐로스(A. Pinillos) 교수가 제시한 대법공지침의 사례들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논의하면서 동시에 대안적 해석을 제시했다.

심사위원들은 “윤철민 교수의 논문은 피닐로스(A. Pinillos)에 의해 촉발된 대법공지침 (de jure coreference)이라는 언어 현상의 본성에 대한 중요한 논쟁을 다루는 논

문”이라며 “대법공지침이란 두 표현의 공지침 사실이 문장을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한 공지침으로서 언어철학과 심리철학의 여러 이론들이 주목하는 현상인데 윤철민 교수의 논문은 대법공지침 현상에 대해 선제 수용이라는 개념을 통해 기존의 이론이 주목하지 않았던 대안적 설명을 제시해 그동안 잘 논의되지 않았던 발화된 문장 속 표현과 선제된 사고 속 개념 간의 대법공지침에 대해 더 나아가 논의를 기대할 수 있음에 그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윤철민 교수는 “철학 연구자로서 모하분석철학 논문상을 받게 되어 큰 영광이며, 이 상을 더 열심히 연구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연구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주기호 기자

순천교육지원청 학교급식 위생·안전관리 총력



순천교육지원청 임준용 교육장은 순천왕의중 급식실을 방문해 식중독과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학교급식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자칫 식품 위생관리에 느슨해질 수 있는 겨울철을 맞아 급식종사자의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8일 급식현장의 상황을 직접 살피고 소통했다.

임 교육장은 김중균 교장과 함께 급식실을 방문해 식재료 보관, 청결상태, 조리과정, 시설·기구 등 급식 전반을 살펴보고, 식당 칸막이 설치, 시차배식, 소독·환기 등 방역관리 상황도 점검했다.

아울러, 순천교육지원청은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재료 납품과 학교급식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식재료 납품업체 위생교육과 간담회를 14일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 실시할 계획이다.

/순천·조순의 기자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 공동모금회에 1억 기탁

희망 2023 나눔 캠페인...2005년부터 2억5천여 만원 기부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가 희망 2023 나눔 캠페인에 동참, 성금 1억 원을 기탁했다.

광주시는 13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정기설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

전남도회장, 김동기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광주 아너 소사이터 회원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부금 기탁식을 열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

회는 기탁식에서 ‘광주지역 저소득 이웃을 돌보는데 써달라’며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억 원을 전달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는 2005년부터 이번까지 총 2억 5000여 만 원을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했다.

정기설 회장은 “코로나19가 아직 끝나지 않은 가운데 고물가로 고통받는 이웃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며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영훈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건설업 체감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도 이웃에 관심을 갖고 도움을 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조일상 기자

KT&G 전남본부, 장학금 2천만원 기탁

‘바른, 깨어있는, 함께하는 기업’ 경영이념 실현



전남도는 13일 KT&G 전남본부가 ‘바른, 깨어있는, 함께하는 기업’이라는 경영이념에 따라 지역 우수 인재 육성을 위해 (재)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장학금 20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기탁한 장학금은 임직원과 회사 기부금을 1대1로 매칭해 모은 ‘상상펀드’다. 전 임직원의 자발적 참여로 마련돼 그 의미를 더했다.

전남도청에서 열린 기탁식에는 문금주 전남도 행정부시사와 최재영 본부장, 고석규 전남인재평생교육진

흥원장 등 관계자가 함께 했다.

1987년 한국전매공사로 설립된 KT&G는 매출액 대비 3.4%를 사회에 환원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사회적 책임기업이다. 담배, 바이오, 건강기능식품 및 화장품 관련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20년 취약계층 500여 가구에 1500만 원 상당 ‘상상나눔’도 시락을 지원, 전국 20개 기관 158개 봉사단을 운영하는 등 특색있는 사회공헌활동으로 지역사회 귀감이 되고 있다. /박종배 기자

순천시 송광면,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새마을부녀회, 취약계층 200세대에 김장김치 전달



순천시 송광면 새마을부녀회는 지난 12일 관내 취약계층 및 홀로 사는 노인 등에게 사랑과 온기를 나누는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행사를 송광종합체육관 앞에서 가졌다.

새마을부녀회 29명은 겨울철 동절기를 앞두고 홀로 사는 노인, 저소득 가정 200세대를 방문해 직접 담근 김장김치를 전달하면서 안부를 살폈다.

새마을부녀회는 매년 겨울철 김장김치를 담아 어려운 이웃에게 김치 나눔을 통해 나눔 공동체 문화 확산

에 기여하고 있으며, 소외계층 밀착한 나눔 등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상생하는 이웃사랑 실천에도 앞장서고 있다.

안기옥 새마을부녀회장은 “김장김치 나눔을 통해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도록 마음을 전할 수 있어 보람 된다”고 말했다.

송진현 송광면장은 “매년 꾸준히 봉사해주시는 새마을부녀회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도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조순의 기자

윤은자 통장, 35개 경로당에 무김치 후원

광양 중마동 윤은자 통장 “소소한 나눔 이어 나가겠다”



광양시 중마동은 지난 12일, 윤은자 18통장이 (재)광양시사랑나눔복지재단을 통해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에게 전달해 달라며 무김치 250kg(35통)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윤은자 통장은 11월 통장 취임 후 경로당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피기 위해 경로당을 방문했을 때 어르신들에게 김치가 부족하다는 말을 전해 듣고, 중마동 전체 경로당에 김치 후원을 계획했다.

윤은자 통장은 “직접 채배한 무료 정성껏 담긴 김치를 경로당 어르신들이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다”며 “어르신들을 위한 소소한 나눔 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정식 중마동장은 “바쁜 일정에도 경로당 어르신들께 김장김치를 나눠 주신 윤은자 통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어르신들께 잘 전달돼 감사한 마음을 전하겠다”고 말했다. /광양·조순의 기자